

김치축제·농업박람회 10억 이상 평평 '빛잔치'

광주·전남 작년 축제 분석

지난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행사와 축제 40건을 치르기 위해 730억1000만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수익은 102억8800만원에 불과했다. F1 대회를 개최하면서 456억4100만 원을 쓰고, 50억원을 버는데 그친 것이 결정적이었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축제 4건에 60억9500만원을 투입, 17억7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4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정보사이트 '재정고(lofin.mospa.go.kr)'의 지역 행사·축제 통합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된 광주지역 축제는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15억

44개 행사 790억 쓰고

수입은 고작 120억원

F1은 406억 적자

7000만원), ACE Fair 2013(15억9000만원), 광주디자인비엔날레(18억원), 추억의 7080총장축제(11억2000만원) 등 4건이다.

전남지역 축제는 F1코리아 그랑프리, 대한민국 농업박람회(12억1000만원), 명랑대접축제(12억5000만원), 순천시 내일엔 문화예술행사(15억7000만원), 정남진장흥물축제(14억7000만원),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13억원), 전남도 체육대회(13억원), 강진정자축제(15억

7000만원), 함평나비대축제(12억9000만원) 등 9건이다.

전남지역 축제 가운데 투입 예산과 수익이 일치한 것은 담양 대나무축제(6억5000만원)가 유일했다. 함평 국향대전은 8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7억원의 수익을, 7억9600만원이 투입된 여수 국제청소년축제는 5억9600만원의 수익을 각각 올렸다.

추억의 7080총장축제, 남도음식문화축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목포해양문화축제, 여수거북선축제, 여수시민체육대회, 실크로드 시장단 여수포럼, 여수세계합창제, 여수 슈퍼모델 선발대회 등은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했다.

또 순천시내일엔 문화예술행사, 순천

만세계동물영화제, 순천동천봄빛축제, 순천전국무용제, 광양국제매화축제, 구례산수유축제, 고흥우주항공축제, 보성다향제녹차대축제, 보성차밭빛축제,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 전남도체육대회, 강진정자축제, 무안연꽃축제, 완도장보고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등도 수익은 '0'였다.

한편 안행부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자치단체가 홈페이지 등에 자체 공시하는 행사·축제의 예산규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는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했다. 공개항목도 7개에서 17개로 늘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정치는 행복한 삶의 길 찾기일지도 모른다. 정치가 실종되고 막히면 국민들은 꿈을 잃고 갈팡질팡하게 된다.

그저서 한국작가회의는 지난달 30일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야당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표류하는 한국 정치의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다. 작가들이 다수 참석한 좌담회에서는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송극영 민교협 상임공동대표,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이 이야기를 이끌었다.

정동영 고문은 순천·곡성 보선에서 이정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민주당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현 지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대정신과 국민 요구에 맞지 않게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날 이야기의 결론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대패할 수밖에 없고 대선에서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제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 등 수권정당의 의

각했던 것은 호남에서 친노에 대한 거부반응이 워낙 크기 때문이었다. 안철수 현상이 사라진 지금의 대안세력으로 박원순, 안희정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권노갑·정대철 고문의 말대로 반기문 총장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친노세력의 야성인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구도에서는 반기문 총장이나 박원순 시장을 후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대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계파주의가 출몰할 것이고 결국 친노가 당권을 장악할 것이 뻔하다. 친노 후보가 될 경우 대선 결과는 필패다.

이 때문에 신당 창당설이 나온다. 김태일(영남대)교수가 새정치 혁신실천위에서 "친노의 패권주의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극약처방으로 "친노계파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10년만에 오는 정권 창출의 절대적명 기회를 놓치지 않게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능성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신당은 호남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레아 야당의 정통성을 담보할 수가

야당에 길을 묻다

지와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제는 국민감성시대라, 보수나 진보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야당이 청와대나 여당에 대한 비판보다 국민 상대로 정치를 펴야 하는 이야기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치열한 정책연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체질 개선과 시스템 정비 등 광범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파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초미의 관심사는 신당 창당설이었으나 질문으로만 끝났다.

대선 주기론으로 보면 다음 대선에서 야당에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동안 10년 진보, 10년 보수로, 진보와 보수가 10년을 주기로 정권을 교체해왔기 때문에, 정권 순환의 주기에 따라 다음은 진보세력이 정권을 되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지금 상황으로는 비관적이다.

문제는 누가 비전이 있고 시대정신을 이끌 후보가 되느냐다. 한 때 호남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대안세력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안철수를 대안세력으로 생

각했다. 얼마 전 천정배 전 의원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호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개혁세력의 결집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앞장서서 실천하기 위해 주소를 광주로 옮겨왔고 철저한 광주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문제는 호남 출신 현역의원들이 그만 용기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나 하는 것이다. 대부분 현역은 대선보다는 자신의 국회의원직 보장을 위해 안존하지 않겠느냐 싶다. 발전적 역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현역이 아니라도 좋다.

지금이야말로 시대정신으로 무장된 정치인이란 호남정치의 순결성과 정통성을 회복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정치구상점의 구축과 출발은 필요하다.

노자는 "길을 잃고 헤매 때 길을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잘못 들어섰다고 생각되는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라고 했다. 노자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지난 대선 때의 잘못을 돌이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소설가>

전남도, 인증 어린이집

4년간 매년 50곳 육성

전남도가 2015년부터 4년간 매년 50개소씩 '전남도 인증 어린이집'을 지정,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우수 어린이집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선 6기 보육분야 대표적 공약사항으로, 정부가 인건비를 주지 않거나 기반이 미약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현재 전남도 내에는 1231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그 중 민간·가정어린이집은 90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또 보육품질서비스인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849개소 중 민간·가정어린이집은 587개소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35%가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314개소를 인증해준 뒤 집중 관리, 평가인증 통과 및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박대통령, 프레지던트컵 관계자와 환담

내셔널 선수단장, 최경주 인터내셔널팀 수석 부단장, 팀 관장 PGA투어 커미셔너, 프레지던트컵 대회는 미국 PGA 투어의 주도로 1994년 출범, 2년마다 열린다. 명예 대회장은 개최국 현직 혹은 전직 국가 원수가 맡는 것이 관례며 내년 10월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에서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프레지던트컵 대회 관계자들을 만나 우승컵을 보여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닉 프라이스 인터내셔널 선수단장, 최경주 인터내셔널팀 수석 부단장, 팀 관장 PGA투어 커미셔너, 프레지던트컵 대회는 미국 PGA 투어의 주도로 1994년 출범, 2년마다 열린다. 명예 대회장은 개최국 현직 혹은 전직 국가 원수가 맡는 것이 관례며 내년 10월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총인비리 건설사 1년 넘도록 제재 못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신청

'버티기'에 소송 수개월째 중단

광주시청 개청 이래 최악의 비리로 기록된 총인시설(하수오염 저감시설) 비리에 연루된 건설사들에 대한 행정제재가 1년 넘도록 지지되고 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까지 신청하며 치명적 제재를

피하려는 건설사들의 '버티기'에 관련 행정소송은 수개월째 중단됐다.

4일 광주시와 법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30일 광주 제1·2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하거나 금품을 건넨 대립산업에 6개월, 코오롱글로벌에 5개월, 금호산업과 현대건설에 각각 3개월, 남해종합건설에 2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보했다.

건설사들은 통보를 전후해 광주지법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남해종합건설은 소를 취하해 올해 초 2개월간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한 제재는 건설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유보됐다.

광주지법 행정부(박강희 부장판사)는 본안 소송과 관련, 회사별로 2~3차례

변론 절차를 연 뒤 대립산업 등에 대해 지난 8월 21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해당 건설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은 입찰제한 처분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별도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결 후 광주지법 행정부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선고한다 해도 업체들이 항소·상고하면 실제 처분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연말연시 모임·피로연·돌·회갑 등

등대바다

(주) 해진수산 (주) 창진수산 전국 유통 직영점!

등대바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938-2 (062)682-9688 정일영 010-2604-7223

해진수산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061)552-7223

창진수산 전남 완도군 고금면 내동리 (061)554-4631

대량 저가 판매 전복 연말 선물 Set

예약 문의 (062)682-9688 ※ 300석 완비, 주차장 완비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자산건전성 8년 연속 1등급 달성!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햇살론 대출 최고 2천만원 신용대출 최고 1억원

근로자, 직장인 전문직을 위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최고 80%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

대인본점: 전남여고, 구도청, 대인생원, 대인비축소, 대인관장, 구도청, 밀리오에, 새터은행, 대성약국, 유동

총장지점: 구도청, 총파, 두리은행, 삼성생명, 유동, 연터극장, 광주일고, 누문동